

제5장

근현대 중국유학 연구

류희성(서강대학교)

1. 머리말

본 보고서는 2022년도 한국에서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과 일반 학술 논문 중에서 중국의 근·현대 시기에 발표된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파악하고 분석·평가한 것이다. 논문 색인의 대상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에 수록된 논문(KCI)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논문정보서비스(KISS)에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했다.

근·현대 중국 유학의 시대적 범위에 관해 약간의 의견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대 중국철학은 본격적인 서세동점(西勢東漸)이 시작된 1840년의 아편전쟁 이후부터 1919년 5·4 신문화 운동까지를 가리킨다. 현대 중국철학은 1923년 과학논전(科玄論戰)부터 현재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아편전쟁부터 현재에 이르는 국내의 중국 유학 관련 연구 성과를 중심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이 시기에는 동서문화의 교류가 빈번하고 여러 철학이 공존한 까닭에 유학을 포함한 다양한 철학적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학의 범위를 넘어서 연구 성과를 포함하기도 했다.

국내의 2022년도 근·현대 중국 유학과 관련된 연구성과는 29편으로 학위 논문은 없고, 모두 연구 논문들이다. 이러한 연구성과는 2021년의 32편보다는 다소 적지만, 2020년 16편, 2019년 10편, 2018년 4편에 비해 많은 것이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우리 학계가 점점 근현대 철학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현대 동아시아의 형성, 특히 현대 한국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는 문제를 고찰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또한 2022년도 근현대 중국철학의 연구 성과를 보면, 지난해와 크게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강유위·호적 그리고 웅십력·모종삼 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새로운 인물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주검지, 탕용동, 장신부 및 한성구의 ‘효’, 정종모의 ‘극기복례’와 같은 신선한 연구주제를 볼 수 있다.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진 2022년도의 성과를 보기 위해 저자별로 연구성과를 나열하겠다. 29편의 논문 목록은 다음과 같다.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지연	장태엽의 공교(孔敎)론 비판	『인문사회21』 제13권6호	인문사회21
2	강지연	조자신(趙紫宸) 사상의 근대 정신적 특성 연구	『인문사회21』 제13권5호	인문사회21
3	김 결	당대신유가 당군의 유가 인문주의 윤리관 연구	『철학탐구』제68집	중앙대 철학연구소
4	김연재	문화철학의 차원에서 본 朱謙之의 唯情철학과 文化空間說 - 민족주의적 발전사관에 착안하여-	『中國學報』제99집	한국중국학회
5	김연재	중국 근대의 진화론적 시계(視界)에서 본 대승 현생적(大乘現生的) 세계와 인간정토(人間淨土)의 경계	『불교학및교학연구』 제1호	한국불교학회
6	김영진	湯用彤의 위진학학 연구에서 보이는 체용론 사유와 스피노자 內在因 개념의 상관성에 관한 試論	『중국학보』 제101집	한국중국학회
7	김제란	현대신유학(現代新儒學)에 나타난 유학 불교 융합의 방식들 -옹십력·당군의·모종삼 3인의 철학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8	김주성	牟宗三의 중국 근대성 논의에 대한 고찰 -良知自我坎陷論을 통한 도덕주체의 과학적 인식은 가능한 것인가?-	『哲學論考』 제5집	단국대 철학연구소
9	김현주	신문화운동의 공자 혐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문사회21』 제13권1호	인문사회21
10	김현주	양계초 사회진화론과 니체사상	『니체연구』 제41집	한국니체학회
11	박진우	괘말약의 목자관 비판-괘말약의 『십비판서』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100집	대동철학회
12	윤지원	지식과 예술의 文化哲學-朱謙之의 지식문화철학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7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13	윤지원	胡適의 문화철학연구-동·서문화관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65집	단국대 일본연구소
14	이남주	쑨원 민생주의에 대한 일고찰 -공상인가, 중국식 사회주의인가-	『분석과 대안』 제6집 3호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15	이병인	장지동(張之洞)의 국가 중간 구상과 문화 전환 -『권학편』을 중심으로-	『청람사학』 제36집	청람사학회
16	이연도	강유위의 순자학: '소강' 단계의 도덕과 욕망	『중국학논총』 제73집	한국중국문화학회
17	이영란	량치차오(梁啓超) 도덕적 상상과 근대 담론	『한중인문학연구』 76	한중인문학회
18	이진명	미일부(馬一浮) 유학사상에서 이기론과 수양론의 상호관계성 문제	『中國研究』 제92권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19	이진명	오우(吳宓)의 반공비유(反孔非儒) 사상이 지닌 득실 분석	『한국철학논집』 제7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	이한결	두아천(杜亞泉)과 진독수(陳獨秀) 논쟁의 검토	『中國近現代史研究』 제96집	중국근현대사학회
21	전홍석	장선푸(張申府)의 철학사상: '변증종합문화관-삼류하일사상-중국발화의 원천과 트랜스모던 지식모델	『한중관계연구』 제8권 1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22	전홍석	주첸즈(周謙之)의 생명주의형 문화학에 관한 소고	『양명학』 제64호	한국양명학회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문화학적 재창안		
23	정상봉	모우중싼의 양지감함론에 대한 논고	『중국학보』 제101집	한국중국학회
24	정종모	현대유학에서 ‘극기복례(克己復禮)’ 해석논쟁과 그 의미 - 하병체와 두유명의 논쟁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65집	중앙대 철학연구소
25	지관순	5·4 新文化運動期 『亞洲學術』派의 再儒化 시도	『중국학보』 제102집	한국중국학회
26	한성구	중국 근대시기 효 비판담론의 전개와 사상적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7집	한국유교학회
27	한성구	중국 근대 불학 부흥의 원인과 철학사적 의의	『중국학논총』 제7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8	한지연	1940년대 말 胡適 자유주의의 실천적 함의	『한국어문논역총간』 제5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29	한지연	후스(胡適) 사상의 실천 전략 및 그 한계 -‘전반서화’와 ‘관용’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100집	중국학연구회

위의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연구 대상인 인물과 주제들이 매우 다양하다. 특히, 다채로운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어 특정한 주제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주제별 분류를 생략하고, 인물별로 분류해서 살펴보겠다.

2. 인물별 분류

인물별 분류는 16명의 학자와 기타 주제를 포함해 모두 17개로 구성된다. 인물별 분류는 연구성과의 다소(多少)에 따라 배열했다.

1) 호적(胡適: 1891-1962)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윤지원	胡適의 문화철학연구-동·서문화관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65집	단국대 일본연구소
2	한지연	1940년대 말 胡適 자유주의의 실천적 함의	『한국어문논역총간』 제51집	중국어문논역학회
3	한지연	후스(胡適) 사상의 실천 전략 및 그 한계 -‘전반서화’와 ‘관용’을 중심으로-	『중국학연구』 제100집	중국학연구회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호적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존 듀이에게 실

용주의를 사사(師事)하였고, 이후에 젊은 나이로 북경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당시 문과대학장인 진독수와 『신청년』 잡지에 참여하며 백화운동 등 계몽운동에 힘쓴다. 아울러 진독수와 함께 과현논전의 과학주의 노선에 서서 서양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전반서화파의 선구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실용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전통문화를 정리하고 새로운 글쓰기 방법으로 『중국철학사대강(中國哲學史大綱)』(1919)을 서술했다.

호적은 중국 최초의 ‘자유주의자’ 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륙과 대만의 장개석 정부에서도 끝내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했다. 북경 대학교 총장과 대만의 중앙연구원 원장을 맡을 정도로 중국을 대표하는 지식인이다.

국내에 일찍이 호적의 철학사가 『중국고대철학사』(1962)라는 이름으로 번역·출간되어 많이 알려졌다으며, 민두기 교수의 『중국에서의 자유주의의 실험-호적의 사상과 활동-』(1996)이라는 저술이 출판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 이처럼 호적은 국내 학술계에 매우 익숙한 인물로서 그에 관한 연구도 매년 빈번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2021년 3편, 2020년 2편, 2019년 4편, 1918년 2편, 2017년 1편 등의 연구성과가 있다.

2) 주겸지(周謙之: 1899-1972)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연재	문화철학의 차원에서 본 朱謙之의 唯情철학과 文化空間說 - 민족주의적 발전사관에 착안하여-	『中國學報』 제99집	한국중국학회
2	윤지원	지식과 예술의 文化哲學 -朱謙之의 지식문화철학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제7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3	전홍석	주첸즈(周謙之)의 생명주의형 문화학에 관한 소고 -동아시아 지역연구의 문화학적 재창안-	『양명학』 제64호	한국양명학회

주겸지는 우리에게 그리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하지만 일본 유학을 통해 철학을 공부했고, 아울러 역사학자로도 이름을 날리는 학자이다. 그는 중산대학교를 거쳐 북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주겸지 선생을 소개한 사람은 전홍석 선생이다. 전홍석 선생은 특별히 문화

철학에 정통한 주검지의 주저 『문화철학』을 번역 출간했고(2007년), 아울러 주검지의 매우 흥미로운 저작인 『중국사상이 유럽문화에 끼친 영향』을 번역 출간(2019년)하기도 했다. 더구나 전 선생은 주검지 철학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주검지의 문화철학 연구』(2006)와 『주첸즈의 문화사상』(2019)이라는 저서를 출간했다. 전 선생은 그야말로 국내 학계에 주검지 철학을 알린 일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헌으로 우리 학계의 동양철학 연구 지평을 도덕철학 중심에서 문화철학으로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2022년에는 3편의 주검지 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3) 모종삼(牟宗三: 1909-1995)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제란	현대신유학(現代新儒學)에 나타난 유학·불교 융합의 방식들-웅십력·당군의·모종삼 3인의 철학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8집	한국유교학회
2	김주성	牟宗三의 중국 근대성 논의에 대한 고찰 -良知自我坎陷論을 통한 도덕주체의 과학적 인식은 가능한 것인가?-	『哲學論考』 제5집	단국대 철학연구소
3	정상봉	모우쥙싼의 양지감함론에 대한 논고	『중국학보』 제101집	한국중국학회

모종삼은 명실상부한 현대 신유학의 대표 학자이다. 그는 웅십력의 애제자로서 스승의 학문을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웅십력은 그의 저명한 세 제자(당군의·서복관·모종삼)의 활약으로 인해 ‘현대 신유학’이라는 새로운 철학운동이 일어나고, 그 명성이 크게 알려지게 되었다. 모종삼은 칸트를 중심으로 삼아 유학을 재해석함으로써 중국 유학의 ‘철학성’을 제고하였다.

국내의 모종삼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80여 편에 이르며, 근래에는 이전보다 그다지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2021년 2편, 2020년에는 1편, 2019년 1편, 2018년 1편, 2017년 2편이 있다. 그의 저작은 모종삼 자신의 키보다 높게 쌓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작으로 뽑을

수 있는 『심체와 성체』가 국내에 완역되어 출간되었으며, 그 외에도 여러 책들이 번역·출간되었다.

4) 양계초(梁啓超: 1873-1929)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현주	양계초 사회진화론과 니체사상	『니체연구』 제41집	한국니체학회
2	이영란	량치차오(梁啓超) 도덕적 상상과 근대 담론	『한중인문학연구』 76	한중인문학회

근대 중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양계초는 강유위의 제자로서 변법자강운동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 명성과 영향이 컸던 정치혁명가이자 철학자이다. 그의 스승인 강유위의 ‘세계주의’와 달리 ‘국가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이 낙후된 원인은 혈연에 의한 ‘부민(部民)’ 단계에 머물러 국가의식이 없기 때문이며, “국민(國民) ‘으로 거듭나야 근대 국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신민(新民) ‘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담은 『신민설(新民說)』뿐만 아니라, 근대 중국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구유심영록(歐遊心影錄)』이 있다.

또한 양계초는 박은식 등 한국의 지식인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가 서술한 『조선망국사략(朝鮮亡國史略)』은 우리에게 커다란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대학술개론』·『중국근삼백년학술사』 등은 청대 철학을 연구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공헌과 영향에 비해 국내의 연구성과는 그다지 많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국내 성과에는 2021년 2편, 2020년 4편, 2019년 2편, 2018년 2편, 2017년 6편이 있다.

5) 장태염(章太炎: 1868-1936)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지연	장태염의 공교(孔敎) 비판	『인문사회21』 제13권6호	인문사회21

장태염은 청말 민초의 학자이자 혁명가이다. 그는 강유위·양계초 등의 개혁 운동에 참가했으며, 손문과 함께 혁명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에 정치 활동을 그만두고 국학의 연구와 계승에 전념하여 학문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노신과 전현동(錢玄同) 등이 그의 제자들이다. 장자의 『제물론』 해석 및 유학·불교 방면의 여러 연구 업적이 있다. 국내에서 그다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1년 1편, 2018년 1편, 2017년 1편의 성과가 있을 뿐이다. 근래에 장태염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강지연 선생이 주목을 끈다.

6) 조자신(趙紫宸: 1888-1978)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강지연	조자신(趙紫宸) 사상의 근대 정신적 특성 연구	『인문사회21』 제13권5호	인문사회21

조자신은 우리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학자이다. 중국에서는 드물게 그는 세례를 받은 기독교 신도인 동시에 저명한 종교학자이다. 1914년 미국의 밴더빌트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고, 동오대학과 연경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쳤다. 기독교와 관련된 많은 저작이 있고, 문화대혁명 기간에 가혹한 박해를 받아 1978년에 별세했다. 아마도 국내의 철학 분야에서 조자신에 관한 연구 논문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여겨진다. 앞으로 좀 더 새로운 인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연구 지평을 넓히기를 기대한다.

7) 두아천(杜亞泉: 1873-1933)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한걸	두아천(杜亞泉)과 진독수(陳獨秀) 논쟁의 검토	『中國近現代史研究』 제96집	중국근현대사학회

위의 논문은 두아천과 진독수의 동서문화논쟁에 관한 연구이다. 진독수는 잘 알려진 인물로서 이대조와 함께 1921년 중국공산당을 창립한 맑시스트이다. 그러나 맑시스트 이전에 진독수는 서구 문명에 대한 전반서화파(全

盤西化派)로서 과학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는 북경대학교 문과대학장으로 초빙되어 5·4 신문화운동을 주도했으며, 호적(胡適)과 함께 『신청년』 잡지를 통해 백화운동 등 계몽운동에 온 몸을 던진 지식인이며, 이후 자유주의로 나간 호적과는 길을 달리해 사회주의로 나갔다. 또한 과현논전에서 호적과 함께 과학주의를 대표하였다. 진독수는 아마도 중국 근대화 혁명에 참가한 인물 중에서 대중에게 가장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모택동 등 사회주의자들에게 수정주의라고 탄압을 받았지만, 두 아들도 사회주의 혁명에 희생됐듯이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되는데 일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근래에 복권되어 중국에서도 영웅으로 추앙되고 있다. 그의 저작은 여러 연설문과 잡지에 실은 글들을 모은 『독수문존(獨秀文存)』이 있다. 중국에는 진독수에 관한 연구가 매우 성행하고 있다.

반면에 두아전은 국내에 그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수학·화학·동식물학 등 과학연구에 전념한 학자로서 많은 과학서적을 번역 소개하였다. 신문화운동 이후에 진독수 등 전반서화론자에 반대하여 동서문화의 조화를 강조하여 동서문화의 차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성질을 문제라고 주장하여 진독수와 날카로운 논쟁을 벌였다. 이한결 선생의 이 연구도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여는데 좋은 계기가 된다고 여겨진다.

8) 마일부(馬一浮: 1883-1967)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진명	마일부(馬一浮) 유학사상에서 이기론과 수양론의 상호관계성 문제	『中國研究』 제92권	한국외대 중국연구소

마일부는 철학과 문학에 정통한 학자이며 시인이고 서예가이다. 영어·불어·독어·일본어·스페인어·라틴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으며, 20세 되던 해에 미국을 방문해 세인트루이스에 머물며 도서관과 서점을 학교 삼아 아리스토텔레스·헤겔·다윈 등 서구의 사상과 문학에 심취했다. 이후 독일 문학에 매료돼 독일로 갔으며 거기서 칼 맑스의 『자본론』을 일고 탄복했다고 한다. 1905년 귀국하며 가져온 『자본론』을 중국에 처음 소개했다.

마일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으며 학문 연구에 전념했다. 그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현대신유학을 양수명·옹신평과 함께 창립한 인물로 전해진다. 그는 중국문화의 근본정신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장은 맹자·유왕심학을 중시하는 양수명·옹신평과 같은 입장으로서 현대신유학의 근본정신이 되었다. 하지만 양수명과 옹신평에 비해 국내에는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다만 요즘 천병돈 선생 등에 의해 국내에 소개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많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그의 저서로는 『복성서원강록(復性書院講錄)』이 있다.

9) 강유위(康有爲: 1858-1927)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연도	강유위의 순자학: '소강' 단계의 도덕과 욕망	『중국학논총』 제73집	한국중국문화학회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대동서』라는 이상 사회론을 제기한 강유위는 철학과 정치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중국의 선각자이다.

강유위에 관한 연구 업적은 2021년의 4편을 포함해 2020년 6편, 2019년 6편, 2018년 4편, 2017년 10편으로 매우 많다. 이러한 많은 연구는 아마도 그의 저작이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다는 점과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10) 장지동(張之洞: 1837-1909)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병인	장지동(張之洞)의 국가 종건 구상과 문화 전환 - 『권학편』을 중심으로 -	『청람사학』 제36집	청람사학회

장지동은 아편전쟁 이후 첫 번째 개혁 운동인 양무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중국문화를 중심으로 삼고 서양문화의 우수한 점을 수용해야 한다는 ‘중체서용’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다. 이 주장은 이후에 커다

란 영향을 끼쳤고 전반서화파와 대립하는 동방문화파와 현대 신유학의 기본 입장이 되었다. 국내에는 그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11) 당군의(唐君毅: 1909-1978)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결	당대신유학 당군의의 유가 인문주의 윤리관 연구	『철학탐구』 제68집	중앙대철학연구소

당군의는 모종삼·서복관과 함께 현대 신유학의 개창자인 웅십력의 3대 제자이다. 그들은 홍콩과 대만에서 활동하여 웅십력의 학문을 전파하였으며 현대신유학이 세계적인 학문이 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특히 당군의는 중국문화의 정신은 인문정신이 이것을 증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현대신유학의 임무라고 여겼다. 모종삼과 서복관에 비해 학문적 성과가 빨라 이미 40대에 중국철학 전반에 관한 저술과 연구를 종결지었다고 하듯이 연구성과가 엄청 많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모종삼이 중국철학 방면의 학문성취를 이루는데 당군의의 영향과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당군의 선생이 이미 이루어 놓은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심화된 연구성과를 낸 것이 모종삼의 업적이라고 말 할 수 있을 듯 하다. 그에 대해 국내 연구는 간간히 계속 이루어 지고 있다.

12) 탕용동(湯用彤: 1893-1964)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영진	湯用彤의 위진 현학 연구에서 보이는 체용론 사유와 스피노자 內在因 개념의 상관성에 관한 試論	『중국학보』 제101집	한국중국학회

탕용동은 일찍이 미국 하바드 대학교에서 철학 공부를 하였으며, 현대중국학술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중·서·인 철학을 융합한 학자라고 평가된다. 그는 특히 중국의 위진현학과 중국불교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

할을 했으며, 커다란 업적도 이루었다. 즉, 『漢魏兩晉南北朝佛敎史』·『印度哲學史略』·『魏晉玄學論考』가 바로 그것이다. 그의 학문을 계승해 연구한 전 북경대 철학과 교수인 탕일개(湯一介)가 아들이다. 국내에는 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13) 장신부(張申府: 1893-1986)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전홍석	장신부(張申府)의 철학사상: '변증종합문화관-삼류하일사상-중국발화의 원천과 트랜스모던 지식모델	『한중관계연구』 제8권 1호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장신부는 학자이자 진독수와 함께 중국공산당을 창립한 인물이다. 그의 학문은 매우 드물게 수리철학에 심취하여 러셀의 철학을 연구하고 소개했다. 아울러 비트겐슈타인의 저작을 번역해 중국에 소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학문 경향은 풍우란·김악림과 같은 부류로 나뉜다. 모종삼 선생이 북경대 철학과 학부 시절에 장신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국내에는 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다.

14) 손문(孫文: 1866-1925)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남주	쑨원 민생주의에 대한 일고찰 : 공상인가, 중국식 사회주의인가	『분석과 대안』 제6집 3호	사단법인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1911년 신해혁명을 주도하고 중화민국을 창설한 손문은 삼민주의로 유명하고 대만과 중국에서 모두 존중받는 혁명가이다.

국내에선 위의 논문과 같이 조소앙 선생의 삼군주의를 삼민주의와 비교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있다. 근래에는 2021년 1편, 2018년에만 4편의 연구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15) 곽말약(郭沫若: 1892-1978)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박진우	곽말약의 목자관 비판 -곽말약의 『십비판서』에 대한 반론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100집	대동철학회

곽말약의 학문은 역사학·고고학·문학·철학 등 매우 광범위하다. 특히 고고학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겼으며, 문학 방면에서는 노신과의 논쟁이 유명하다. 철학에 있어서는 『십비판서』가 유명하다. 곽말약은 일본 유학 중에 사회주의 이론에 접하게 되고 결국 중국공산당의 중추인물 겸 이론가로 이름을 떨쳤다. 하지만 자유주의 중국권에선 매우 기피하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문학이나 역사학에서는 간혹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철학에서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16) 오우(吳虞: 1872-1949)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이진명	오우(吳虞)의 반공비유(反孔非儒) 사상이 지닌 특실 분석	『한국철학논집』 제75집	한국철학사연구회

오우는 일찍이 중국전통학문을 익히다가 무술병법 이후에 서양의 사회정치이론에 매료되어 일본의 법정대학에서 연구에 매진했다. 그는 신문화운동 기간에 유교를 비판하는 여러 글을 써서 반전통주의자가 되었다. 즉 『가족제도는 전제주의의 근원이다』, 『사람 잡는 유교』 등을 발표했다. 이런 까닭에 호적은 그를 “쌍수를 들어 공자의 유교를 때려잡는 영웅이다.” 라고 일컬었다. 이러한 오우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7) 기타 : 6편

번호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발행기관
1	김연재	중국 근대의 진화론적 시계(視界)에서 본 대승 현생적(大乘現生的) 세계와 인간정토(人間淨土)의 경계	『불교학및교학연구』 제1호	한국불교학회

2	김현주	신문화운동의 공자 혐오,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인문사회21』 제13권1호	인문사회21
3	정종모	현대유학에서 ‘극기복례(克己復禮)’ 해석논쟁과 그 의미 - 허병체와 두유명의 논쟁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65집	중앙대철학연구소
4	지관순	5·4 新文化運動期 『亞洲學術』派의 再儒化 시도	『중국학보』 제102집	한국중국학회
5	한성구	중국 근대시기 효 비판담론의 전개와 사상적 특징	『유교사상문화연구』 제87집	한국유교학회
6	한성구	중국 근대 불학 부흥의 원인과 철학사적 의의	『중국학논총』 제75집	한국중국문화학회

2022년도의 연구성과에서 주목을 끄는 논문이 있다. 예컨대, ‘효’ 담론과 근대에서 불교가 부흥한 원인, 즉 신학(新學)의 부흥, 그리고 공자의 ‘극기복례’에 관해서 벌어진 논쟁에 관한 논문들이다. 사실, 어떤 특정 인물에 관한 연구보다 특정한 이론에 관해서 연구하는 것이 좀 더 어렵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과거의 특정 이론이나 주장을 현대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더욱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2022년에 발표된 근·현대 중국 유학에 관련된 29편의 논문을 인물별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에는 29편의 논문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선택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해 보겠다.

3. 주요논문 분석 및 비평

29편의 연구성과 중에서 철학적으로 이론적인 의미가 크다고 여겨지는 논문을 선별해서 살펴보겠다.

1) 정상봉, 「모우쥙싼의 양지감함론에 대한 논고」

이 논문은 모중삼의 철학 체계인 도덕형이상학에서 그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인 양지자아감함론(良知自我坎陷論)에 대해 연구한 글이다. 국내

및 국외에서도 이 주제로 쓴 논문들이 비교적 많다. 왜냐하면 이 자아감함론이 모종삼 도덕형이상학 체계의 중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문의 특징은 양지감함론의 구조를 독일관념론으로 설명하는데 있다. 사실, 모종삼은 칸트철학에 의해 중국철학을 해석하고 또 그것에 의해 자신의 이론체계를 형성했지만, 칸트 이후의 관념론, 특히 피히테나 헤겔의 영향도 크게 받았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들은 이를 간과하고 칸트에 의해서만 모종삼의 체계를 해석하려 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자신의 논문을 다음처럼 설명한다. “모우쥙싼은 유학이 민주와 과학의 지평을 열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양지감함론을 제기하였다. 양지감함론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동안의 독일철학에 그 이론적 연원이 닿아 있다. 독일 관념 철학을 대표하던 피히테 셸링 헤겔은 각각 삼위일체(三位一體)를 논하였는데, 모우쥙싼은 그 가운데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계시종교(啓示宗教)를 논하면서 성부에서 성자로의 육화(肉化)는 다름 아닌 성부의 육화(肉化)이며 성자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성령에로의 복귀라고 한데서 착안하여 양지감함론을 제기하였다.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위격이 일체됨을 설명하면서 특히 성부에서 성자로 스스로를 떨어뜨리는, 즉 자기감함의 결단을 내리는 점에 주목하여 양지감함론을 정립하였다. 이것은 도덕이성이 이론이성으로 전화하는 것이며, 도덕심(道德心)이 인식심(認識心)으로 바뀌는 것이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또다시 감함의 자기부정을 통하여 자신에게로 회귀를 한다. 실제 모우쥙싼의 중국철학에 대한 설명은 전체적으로 그 분석틀이 주관적이다. 그러다 보니 학계의 반응도 다양하다. 아마 앞으로도 모우쥙싼의 학문세계에 대한 이해, 특히 그의 양지감함론과 그에 대한 평가는 지속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우선 모우쥙싼의 학문세계에 관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를 한 뒤 그다음 공정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물론 전통 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다각적인 접근도 새롭게 시도해야 한다.” 이 논문은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에 있어서 좀 더 종합적이고 완성된 연구가 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2) 이진명, 「마일부(馬一浮) 유학사상에서 이기론과 수양론의 상호관계성 문제」

마일부는 중국의 정신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의리를 드러내 밝히는 것이다.” 라고 하듯이 맹자나 육왕심학(心學)을 계승·발전시킨 현대신유학의 개창자이다. 그는 양수명·옹십력과 함께 전통에 근거해 서양의 우수한 점을 수용하자는 입장을 견지한다. 우리 학계는 양수명과 옹십력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마일부에 대해선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 논문의 목적이 마일부(馬一浮, 1883-1967)의 철학 체계의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마일부가 중국 근대 신유학의 국사(國師)로 알려져 있고, 그의 사상은 이기론(理氣論)과 수양론(修養論)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 그 특색이 있다. 즉, 그는 역대 유가 사상을 하나씩 검토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경계를 구조화시켰다. 나아가 육예(六藝)를 통해서 유불선을 회통시키며, 지식과 수양, 본체와 현상이 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렇듯 마일부의 의론은 깊이가 있으며, 현대 유학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그러나 국내에는 마일부에 관한 연구가 미진하다. 그 이유로, 첫째 마일부 사상이 난해성을 손꼽을 수 있다. 둘째, 동시대 사상가인 옹십력이나 양수명에 비해, 마일부는 은둔자의 삶을 살았고, 중국에서도 연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마일부는 중국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마일부 사상의 전반적 내용을 검토한 후 이기론과 수양론의 종합되어 가는 논리적 구조의 모습을 조망하였다.

필자도 밝혔듯이, 중요한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구가 미진하다. 이 방면의 연구는 아마도 천병돈 선생이 시작한 것처럼 보인다. 필자의 연구를 시발점으로 앞으로 마일부에 대한 연구가 많아졌으면 하고 기대해

본다.

3) 이남주, 「쑨원 민생주의에 대한 일고찰: 공상인가, 중국식 사회주의인가」

이 논문의 목적은 손문 삼민주의에 있어서 민생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를 제조명하고, 그것이 사회주의적 실천에 주는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민생주의 형성과정 및 그 핵심 강령, 평균지권과 절제자본의 내용을 분석했다. 중국에서 민생주의는 오랫동안 주관적 사회주의, 공상적 사회주의로 폄하되어 왔다. 그러나 민생주의는 사회주의의 중국화의 가장 선구적이고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자본주의적 방법을 사회주의 건설에 활용한다는 접근법은 개혁개방 시기 중국 사회주의 개혁의 핵심 내용을 앞서서 포착한 것이다. 그 때문에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도 민생주의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의 공식 이론과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춰 민생주의를 평가하는 방식은 이론적 사유를 진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필자는 근대, 즉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대한 적응과 극복의 두 과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는 이중과제론의 문제의식이 민생주의의 현재적 의의를 더 분명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균열이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나 인류사회의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발견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이 논문은 손문 삼민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민생주의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오늘날 대만이나 중국에서 모두 손문을 국부로 삼고, 그의 삼민주의를 계승한다고 하는데, 이 논문은 어느 것이 손문의 본뜻인지 다시 한번 음미해 볼 기회를 주고 있다.

4) 정종모, 「현대유학에서 ‘극기복례(克己復禮)’ 해석논쟁과 그 의미-하병체와 두유명의 논쟁을 중심으로」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초반 중화권에서 전개된 ‘극기복례(克己復禮)’ 해석논쟁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피는데 있다. 이 논쟁은 저명한 역사학자 하병체(何炳棣)가 현대신유가 진영에 속하는 두유명(杜維明)의 극기복례 해석을 비판하면서 촉발되었다. 두유명은 수신(修身)과 자아 완성의 각도에서 공자의 극기 개념을 이해한다. 반면에 하병체는 주체의 억압이나 통제 의미의 의미가 농후한 금욕주의의 맥락에서 극기를 해석하고, 또한 복례 역시 전장제도로서의 주례(周禮) 회복이 핵심이라고 판단한다. 하병체의 비판에 대해 유술선(劉述先)이 두유명을 옹호하며 반론을 펼쳤으며, 훗날 두유명이 자신의 관점을 정리한 저술을 출간함으로써 논쟁은 일단락되었다.

이 논쟁은 마치 대리전을 방불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철학, 특히 주자철학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 논쟁과 유사하게 역사학자인 전목과 모종삼의 갈등이 있다. 공교롭게도 하병체는 전목 계통의 학자이고, 두유명과 유술선은 모종삼의 애제자들이다.

무엇보다 이 논쟁은 『논어』의 훈고학적 해석 문제를 넘어서 있다. 다시 말해, 유학의 핵심인 인(仁)과 예(禮)의 의미 및 이와 관련된 연구방법론을 둘러싸고 역사학자와 철학자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이는 실증주의 방법론과 해석학적 방법론의 충돌을 함축하는데, 특히 홍콩과 대만의 현대 신유가 노선이 중시하는 창조적 해석학 방법론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갖는다.

이 논문은 하병체의 비판에 대한 두유명과 유술선의 대응을 검토함으로써 현대신유학 진영의 유학 이해와 연구방법론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살피고, 이를 통해 최근 중화권에서 대두하고 있는 유가의 인학(仁學) 연구의 배경과 맥락에 접근하는 실마리로 삼고자 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의 주제는 아마도 유학의 현대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전적 유학의 핵심 문제를 현재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우리들이 하고 있는 동양철학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철학은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 삶을 위한 것이듯, 철학뿐만 아니라 학문을 연구하는 데도 항상 ‘현재’ 라는 시점을 중심으로 연구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4. 평가와 전망

지금까지 2022년도 국내에서 발표된 근·현대 중국 유학에 관련된 29편의 논문을 인물별로 정리하고 4편의 논문을 선택해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에서 다음과 같은 특기할 만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근래에 근·현대 중국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다양한 대상과 주제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동양철학 연구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생각된다. 2022년도 연구에 있어서도 조자신·주검지·탕용동·장신부·곽말약·오우·두아천 등 새로운 인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근·현대 연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연구가 많은 부분 비철학전공자, 즉 문학이나 역사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래 중국학에 있어서 문·사·철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철학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철학의 영역에 가까운 것은 철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보다 많은 철학 연구자들의 근·현대 중국 철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희망해 본다.